

주부신행담

천식과 불법인연 ④

어느 날 한 사찰을 찾아가 큰스님께 조상들의 천도재를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천도재를 지내려면 일주일동안 정성들여 기도를 올린 뒤에 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더불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기도라는 생각에 찬식을 먹으면서 매일 백팔 참회와 경을 외는 기도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본 딸아이는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백팔매와 경을 읽는 것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했다. 딸아이가 그렇게 기도정진을 열심히 한 이유는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이처럼 지극성심인 딸아이의 기도덕분이었는지 천식이 서서히 낫기 시작하면서 불교방송에서 주최하는 인도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이라도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인도. 가슴 설렘을 안고 7박8일 간의 인도 성지순례를 떠났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델리의 녹아원이었다. 녹아원은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설하신 곳으로 사르나트르에 있는데, 사르나트르에서도 맨 먼저 들른 곳이 차우칸디 스투파였다. 차우칸디 스투파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첫 설법 대상을 삼으신 5인의 수행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어 방문한 사르나트박물관은 AD 1세기경 무산왕조에 제작된 마투라 불상에서부터 3~5세기에 이르는 굤타왕조대의 불상 및 8세기경의 밀교의 영향을 받은 후기의 불상들이 시대별로 구분

소장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인도에 와보고 싶어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엔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 보드기아를 방문했다. 보드기아에 도착한 날이 성도절이라 기념 법회가 마하보디사원 대보리사에서 거행되었는데, 대보리사의 담장 곁에 자리하고 있는 약 24m의 대보리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싯타르타의 탄생과 함께 이 자리에 솟아올랐다고 하는데, 현재 이곳에 심어져 있는 보리수는 원래 보리수의 지손 격에 해당된다고 했다. 보리수나무 옆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금강좌가 있었고, 또한 좌측에는 이곳 금강좌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첫 발을 내딛던 곳에 새겨졌다는 부처님의 두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가 놓여져 있었다.

영축산 칠엽굴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칠엽굴은 부처님 입멸 이후 6개월 후에 대가집 존자와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과 율을 모은 최초의 경전 결집장소로, 평생 배워도 부처님 말씀을 다 듣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인도성지순례는 나약해진 마음에 의자처럼 앉았던 불교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보고 들은 것 모두가 부처님 법을 믿을 지금도 생생히 느낄 수 있으나,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 준 부처님 가피에 감사할 따름이다.

내에게는 남매가 있다. 어려서 아무 말없이 잘 자라온 두 남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주부라면 모두들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일을 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

린 남매를 잘 돌봐줄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두 남매는 아무 문제없이 성장하여 대학도 마쳤다. 아들은 건설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딸아이는 다른 직장을 거쳐서 불교텔레비전에 재직하다가 결혼을 하였다. 아이들은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런 아이들이 내게는 또다른 부처님이나 다름없다.

아기를 잉태하는 새내기 엄마들의 태교가 아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절실하게 느꼈다. 딸아이가 임신한 후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명산 대찰을 두루 찾아다니며 부



그림 · 이준석

백팔 참회와 경을 외는 기도정진 끝에 그렇게도 괴롭히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인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알아보는 것 같아 나를 여러 번 당황하게 했다. 제멋대로 움직이며 놀다가도 '관세음보살' 소리가 들리면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들곤 했다. 제엄마를 보고 손자녀처럼 '엄마'를 부르며 달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지나가시는 스님을 보고는 합장인사를 하곤 해주위를 놀라게 했다. 간혹 TV에서 사발한 연예인만 나와도 스님인줄 알고 합장인사를 하니 '참으로 인연이라는 것이 이토록 뿌리깊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는 모기한테 피를 빨아도 합장하고 절을 해서 어른들을 웃긴다. 이렇게 하는 행을 따라하는 작은 녀석의 모습은 더욱더 참진하고 귀엽다. 자식들뿐 아니라 손자들

도 내게는 또다른 부처님이다. 맑고 순진무구한 모습이 해탈한 부처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쯤이면 '술은 입으로 먹고 사람은 눈으로 듣는다'는 내용의, 오래 전에 읽었던 시가 생각나곤 한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 녀석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싶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숭순 수범하는 할머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법만을 믿고 따르는 녀석들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난다. 얼마 전에는 손녀아이가 태어났다. 이 어린 손녀는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하면서도 그 손녀 역시 부처님 법만을 믿고 따르는 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생을 쉰 날 한 자루 사르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 몸받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 불법을 잘 모르던 때에는 한두 번 다른 종교에 관심이 가져보았다. 그러나 불교방송에서 교리(敎理)를 조금 배우고 난 후부터는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됐다.

새로운 해, 새로운 세기를 맞아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다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고 새로운 내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가치 있는 상,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보며 부처님의 위대한 신념만을 견뎌내야 한다고 따라야 할 줄 알고 있다.

지금도 사실은 행여 병이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 자신을 수양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항상 증생들을 보살피시는 불·법·승 삼보가 내 곁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결실 노인을 위하여 점심공양을 보시하는 연꽃마을 마포 재가노인복지관에서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한 달에 몇 번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 투병생활에 사달리는 어린 새끼들에게 쓰여지는 거즈를 접는 일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다. 비록 크지 않은 봉사지만 남을 돕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니 내 스스로가 밝아지고 맑아짐을 느낄 수 있어 환희심이 절로 난다.

그리고 마음 속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남편이다.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이러한 고마운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신 부처님이 더없이 고마운 뿐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 드린다.

이종래(경기도 고양시 일신구)

새천년, 우리 몸에 부족한 기를 충전시켜주십시오.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면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강속이 속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기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제왕사바)

- 피라미드에서 명상효과(백병은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제효과(민병성씨)
- 적형상으로 수심된 고생하다 풍아질(주부 강양성씨)
- 뇌격명기 건강이 표현(이호준씨)

A: ₩ 200,000 B: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마워봉 (침21기 순금도금) ₩ 80,000 <set 220,000>

수정피라미드 ₩ 55,000	수정생리안목걸이 ₩ 35,000	은희관(목) ₩ 45,000	은희관(목걸이) ₩ 65,000	자수성 목각목걸이 ₩ 70,000	희관비스프 ₩ 12,000	희관아이핀 ₩ 30,000
홍 불도 ₩ 55,000	홍 목대 ₩ 30,000	푸르티 ₩ 55,000	벽걸이 희관 ₩ 45,000	별 희관목걸이 ₩ 48,000	수정팔찌 ₩ 35,000	수정목각 목걸이 ₩ 77,000

· 수정타사추 : ₩ 40,000 · L-로드 : ₩ 20,000 · 무릎밴드 : ₩ 18,000 · 히파스 : ₩ 10,000 · 수정용각히란야(식수용) : ₩ 35,000
 · 전화를 주시면 기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드로도 결제가능 무료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고혈압, 당뇨, 강, 장, 비만) 책자배송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 시리즈

- ① 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 / 값 3,300원 /
- ② 아함경 돈연 스님 역 / 값 3,800원 /
- ③ 화엄경 김지건 박사 역 / 값 3,800원 /
- ④ 유마경 박용길 역 / 값 3,500원 /

작은경전 시리즈

- ① 부무은중경 · 지찰경 ② 금강경 ③ 능엄경
- ④ 대반열반경 ⑤ 숫타니파타 ⑥ 본생경 ⑦ 미혹경전 ⑧ 과거현재미래경 ⑨ 밀린다함은경도 계속 간행됩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낮선 포교당에서 일어나는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원옥스님의 포교당일기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스님이라네!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기해하는 눈빛의 아이,
 스님과 부처님을 모르다니..... 이런 기가 막혔다.

“생생한 좋은 것이 참 많습니디, 그 중에서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마음다워서 이쁨이며, 나이, 생김새, 마음이 슬플게 기쁨.....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일인 이야기를 조금씩 적어 놓았지요.”

신국판 280쪽 / 값 7,500원

원옥스님은 21년 전 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교 동학사 강의를 졸업하고 지금은 경남 함안 안의 포교당에서 주빈 사당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